

해양도시, 부산의 문화와 관광

김 태 만*

《目 次》

- | | |
|----------------------------|------------------------|
| I. 들어가면서 | 4. 청년문화 공간 조성의 방향 |
| II.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 공간 | 5. 주제가 있는 공간 조성의 방향 |
| 1.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의 방향 | III. 관광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 2. 생태문화공원 조성의 방향 | 1. 부산의 관광 산업 |
| 3. 친수문화 공간 조성의 방향 | 2. 부산 관광산업 발전의 기본 전략 |
| | IV. 나오면서 |

I. 들어가면서

‘밖으로 전지구적 자본화에 저항하면서, 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발전 전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측면에서의 도시정체성 형성은 어떠한 형태로 진보해 가야 하는가?’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도시정체성은 어떤 도시에 대하여 내부인(insider, 시민)과 외부인(outsider, 방문객)이 그 도시 환경에 대하여 인식하는 공통된 이미지를 의미한다. 모든 도시는 모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진 도시란 참다운 이미지(authentic image)와 더불어 바람직한 이미지(desirable image)를 가진 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도시가 지닌 정체성을 발견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정체성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부산”은 어떠한가. 각종 문화 인프라의 서울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부산다움을 지니면서 개성 많고 활력 넘치는 해양도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 1) 우리나라 전체대비 도서관은 34.6%, 박물관은 40.7%, 미술관은 59.6%, 공연장은 41.5%, 영화관 스크린 수는 53.1%, 문화유산은 24.4%, 문예회관은 25%, 문화의 집은 35%, 문화원은 26.5%, 문화의 거리는 43.6%, 청소년수련시설은 23.7% 등으로 평균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시로 성숙하기 위해서 문화와 역사를 핵심으로 삼는 부산다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004년 12월, 부산광역시시는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제4차 국토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장기 도시계획』을 발간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도시발전의 미래상 수립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의 제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 등의 수용,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활용 및 관리방향의 제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법체계에 의거한 장기 발전 방향의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첫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 제18조~제23조(도시기본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장 제14조~제17조(도시기본계획) 등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로 삼고, 둘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및 공원·녹지 등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 급격한 도시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기존 부산도시기본계획(1996)을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 등을 기본 성격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0년까지 도시기본골격을 ‘1도심 5부도심 5지역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1도심은 광복동/서면, 5부도심은 해운대, 동래, 구포, 사상, 하단, 5지역중심은 기장, 정관, 금정, 대저, 가덕·녹산 등을 지칭한다. 부산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제시된 도시기본골격을 전제로 한다하더라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면서 도시공간의 구조와 콘텐츠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도시기본골격은 생활권별 개발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권역	특징
서부산권(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첨단생산기능의 중심지역,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유통·생산기능의 확충, 경제자유구역개발 등을 통하여 물류생산거점으로 육성, 낙동강하구일원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전략 수립, 미개발·낙후지역과 주거·공업 혼재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중부산권(중·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수영구)	금융단지, 역세권개발 등을 통해 무역·금융 거점지역으로 육성,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기존시가지 체계적 정비, 항만·물류기능 일부 확충, 워터프론트 개발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배치
동부산권(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기능 거점으로 특화, 센텀시티 조성을 통한 정보기능의 거점으로 특화, 대규모 접객시설 등 관광단지 조성, IT·미디어 집적단지 조성으로 대표적 첨단산업단지 육성,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산, 바다, 강이 어우러져 녹색, 청색, 남색의 도시 공간을 지니고 있다. 바다와 강이 있는 친수공간과 산과 들로 이어지는 녹색의 생태공간이 존재한다. 그 속에서 살아온 부산사람들이 빚어놓은 역사와 문화의 공간이 어우러져 있다. 이것들이 어우러져 부산다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산의 공간은 그 입지조건만으로도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지닌다.

○ 해상과 내륙의 운송체계를 결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 : 환태평양권,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에 위치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지정학적 조건과 항만, 철도, 공항 등 해상·내륙 운송체계를 결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 서부산권개발 등 항만물류기능 강화 기회 : 서부산권개발을 통한 부산신항만건설, 복합물류단지조성 등 경제자유구역개발로 국제항로의 중추항(Hub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역기능이 강화되어 해양수도로의 성장잠재력 증가.

○ 동북아시아 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교역거점 성장 기회 : 동북아시아 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중국(TCR), 시베리아(TSR) 관통철도의 시발점으로서의 위상정립 및 거점기지 역할 전망.

○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부산권 개발 등을 통한 관광·휴양기능 강화 기회 : 풍부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전·이용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동부산권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체류형 관광·휴양명소로 활용이 가능함.

○ 경제활동인구 및 고학력 인구 증가에 따른 풍부한 인적자원 : 경제활동인구(15세~64세 인구)의 증가와 전문대학, 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된 고학력 인구비율의 증가추세를 토대로, 고도화된 지식산업활동 기반 확대와 부품 및 신소재, 소프트웨어, 영상 IT산업 등 성장유망산업의 유치가 가능함.

이를 토대로 부산은 대내적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스펙터클한 경관(풍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적 환경과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과 시설 또는 테마공원 등을 건설하고, 강과 바다를 무대로 하는 생태관광, 도시 공간 자체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시티투어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21세기 부산을 살기 좋고 행복한 해양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역사와 문화 및 그에 바탕한 부산 관광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도시 안에 저마다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듯, 부산이라는 도시 안의 각 지역사회들 또한 자기 나름의 색깔인 '지역사회다움(communitiness)'을 지니고 있어야

부산이 바람직하고 경쟁력 있는 ‘부산다움’을 얻어 부산성(Busan-ness)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 공간

1.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의 방향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관 특성이 지역의 경쟁력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그 주변 환경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 상징성 등을 통해 다양하고 특징적인 것으로 연출할 수 있으며, 그 자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우수한 도시경관, 도시이미지 연출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부산의 특색에 부합하는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 환경에의 새로운 인식을 통한 문화 인프라 구축과 친숙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역사문화 환경 조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개발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부산은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5,000년에 이르는 역사적 깊이와 더불어 숱한 역사문화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문화재급 자원은 자체시설의 보존에만 치중해왔기 때문에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연계된 공간으로 발전 시킴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문화재와 함께 역사적 장소성을 지닌 주변의 지역을 포함한 지구(地區)차원의 총체적인 정비를 통해 상징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역사문화 환경 개념 및 범주 내의 역사문화자원 중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어져 온 개념으로 ‘문화재’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이 포함된다. 문화재의 법률적 정의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이 쌓아온 축적물들로 이루어진 환경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역사문화환경’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역사문화환경은 단순히 문화재만이 아니라 건축물, 구조물, 유적, 사적, 민속, 전통산업, 자연환경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구체적인 환경으로 고유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지명이나 유래, 전설, 역사적 사건 등 무형적인 것과 생활 및 산업 활동의 장소, 지역 역사를 인식하는 장소로서의 속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를 점에서 면으로, 곧 역사적 문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부터 변해가는 생활 까지를 포함한다는 포괄적 내용으로 그 개념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는 협의로는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대상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환경을 의미할 수 있다.

부산의 역사문화자원은 금정구와 동래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장소들 주변의 지리적 특성이나 역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정구의 경우는 사찰과 공원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금정산이라는 자연경관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래구는 옛 동래읍의 중심지역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해 있으며, 대부분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적에 속한다. 사상구와 사하구 역시 낙동강 유역에 면해 있어 이와 관련된 패총이나 고분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영도구는 영도대교를 비롯하여 태종대 등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복원, 다양한 공연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도심 역사문화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정산-동래읍성-수영성을 잇는 '전통문화벨트'와 용두산공원-근대역사관-중앙동-40계단을 잇는 '근대문화벨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동래구, 수영성, 금정산 등을 역사공원 및 시민녹지공간으로 전환, 하야리아부대 부지를 녹지공간과 역사문화공원으로 재창조하거나, UN묘지, 민주공원 등을 근린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추가 지정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에 의거한 체계적이고 기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미관지구 지정제도', '보존지구 지정제도', '경관지구 지정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에는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3개소이다. 이를 재조정함과 동시에 추가로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적지·전통건축양식 등이 소재한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포함

2) 참고로 2002년 현재 서울시의 경우 역사문화미관지구가 160개소(10,213,000㎡), 대전시는 45개소(1,347,105㎡), 광주시 5개소(151,060㎡), 경기도 5개소(9,028,221㎡)가 지정되어 있는 점을 참고로 하여 부산의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여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둘째, 국가·시 지정 문화재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노선주변(500m내외)에 입지하여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전통건축물의 주변 등 역사 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 셋째, 대상지구의 역사문화재 지명 존재여부나, 대상지구 역사문화재 자원의 가시성 여부 등 해당 가로의 역사문화적인 풍토와 이미지가 표출되고, 역사와 관련된 활동이 일어나는 노선. 넷째,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수준 높은 도시이미지와 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다.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추천 지역>

항목	빈도(명)	비율(%)	항목	빈도(명)	비율(%)
금정산성 주변	76	22.6	동삼동패총 주변	23	6.8
동래읍성지 주변	52	15.4	동래패총	26	7.7
자성대 주변	35	10.4	좌수영성지	22	6.5
초량상해거리	19	5.6	일신여학교교사 주변	8	2.4
구포만세거리	12	3.6	임시수도기념관 주변	17	5.0
임진동래의총 주변	24	7.1	기타	1	0.3
다대포객사 주변	22	6.5	합계	337	100.0

2)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체계적 관리

향후 지역적 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역사문화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도 실천적인 관리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환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관리지침 마련이 요망된다. 둘째, 관리지침 설정과 병행하여 실천의 측면에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부산에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조정과 추가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끝으로 역사문화환경은 단일한 자원적 가치보다는 지역적 맥락과 환경으로서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역사문화환경을 가꾸고 다듬는 일을 통해 새로운 역사문화환경이 창조될 수 있고, 이는 현재를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귀중한 유산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국수봉-연대봉축, 낙동강 동편에 위치한 아미산-동매산축, 천마산-진정산축의 산림축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수계생태계 연결은 낙동강축과 서낙동강축의 중심 라인으로 하여 평강천이 두 축을 연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김해평야는 산악지형이 부족하지만 평야라는 특이성에 의해서 경작지내의 야생 생물의 피난처 및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산림지역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경작행위에 의한 녹지 면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작행위 중에서 일정 구역에 대한 휴·경작 및 논농사 장려책을 실시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삼림축은 최소 500m이상의 폭과 다층구조를 가지는 삼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는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와 식물자원의 생육 및 산포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천축은 지역의 수역을 연결하고, 야생생물의 직접적인 수자원 공급 기능 외에도 삼림축과 더불어 생물이동통로의 역할을 수행 기능과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김해평야 지역에 주요 수자원을 공급하는 3개의 하천인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유기오염과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낙동강 하구역의 생태계 네트워크 단절을 보완해야할 지점은 총 3개 구간, 7개 지소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무상양여를 통해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 온 하야리아 미군부대 부지를 부산의 문화,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온천천 등 도심 수변공간과 하천 생태를 복원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시민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온천장-연제구-수영구에 이르는 온천천변 녹지축을 최대한 살리고, 금정산-백양산-승학산-물운대에 이르는 백두대간 녹지축 보존을 통해 생태휴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암남동, 태종대, 을숙도 등을 복합자연생태문화레저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완전 개방해야 한다.

3. 친수문화 공간 조성의 방향

여타 도시와 달리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인 부산은 임해역 전반에 걸친 친수공간(Water Front)³⁾ 개발이 가능한 도시이다. 부산은 해안지형 특성상 지리적으로는 산과 섬으로 둘러싸여 항내 수면이 잔잔하며 수심이 깊고 조석간만의 차가

3) 친수공간(Water Front)의 경관을 연출하는 핵심요소는 재료와 채색의 조화, 스카이라인의 통일, 슬릿(Slit)의 확보, 전망의 확보, 조망의 확보, 식재의 축진, 랜드마크의 형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좋고 나쁨에 따라 친수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달라지게 된다. 특히 Water Front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적 포용성으로 예로부터 항구도시들은 이질문화(異質文化)를 그다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류하는 독특한 융합공간(融合空間)의 역할을 현재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적은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부산의 해안은 해안선 굴입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해안선 길이는 육지부의 162.3km와 가덕도 해안선 35.5km, 영도 해안선 21.7km를 합한 219.5km이다.

부산에 있어서 친수공간은 부산의 도시경관을 결정짓는 특수한 요소로서 이를 도시 활성화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친수공간이 지니고 있는 공간적 특성과 함께 그 곳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특성 및 이용방면 상의 특성으로 인해 친수공간은 다양한 환경변화의 요구에 따라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 왔다.

<부산연안 친수공간의 권역별 개발방향>

권역	거점지역	특화기능	도입가능활동	개발방향
동부 산권	대변 (해양관광·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해양리조트기능 해안관광도로 기능 해양휴양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리조트 활동 경관도로(테마거리) 조성 노인휴양(실버타운) 어촌 체험관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기능의 거점화(대변, 연화지구 등)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암석해안은 보전을 원칙(친환경적 활용)
	해운대 (해양레저·휴양·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형해변휴양기능 해상관광 기능 해상스포츠 기능 야간조명거리 센텀시티기능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수욕 및 숙박활동(호텔, 온천센터 등) 관람 및 먹거리단지 해양스포츠 활동 야간 조명시설 및 환경조형물 컨벤션센터, 어뮤즈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특구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유도 및 4계절 24시간 체제 달맞이길의 관광자원 보전 및 먹거리단지 활성화
중부 산권	광안리 이기대 (친수공간 자연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장년층의 Night-Life를 위한 도심 해변 위락 기능 이기대·오륙도 자연휴양기능 민락동 먹거리단지 특성화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수욕 및 휴양, 상업활동 해변, 휴양, 관광활동 해안친수접근로 조성 식음활동과 연계된 가족형 공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안리, 남천동의 배후 상권 활성화 10,20대의 젊은 층을 겨냥한 활동공간 조성 양호한 자연자원의 친환경적 휴양공간 조성 민락회센터와 연계된 친수휴양공간 조성
	도심 (항만 및 도시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여객·철도환승기능 도심형 워터프론트의 재개발을 통한 친수 여가 기능 국제업무·항만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 국내관광객 환승 활동 지원 해상크루즈 업무, 교류지원의 도심형친수여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역세권 개발 및 북항Water Front 개발과 부산 제2롯데월드 개발의 활성화로 도시기능제고 항만시설지의 재개발시 사업초기단계부터 계획적 친수공간 조성 및 현단계에서의 시민 친수접근성 확보
	영도·송도 (도심형 관광, 친수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문화관광 기능 도심형 친수 여가 공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문화의 역사전시, 학습, 체험활동 해변 위락활동 해안 친수접근로 조성 갯벌 체험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삼해양문화원, 송도해수욕장일원 등 거점 개발로 도심 내 관광기능 제고 다대해수욕장 일원 갯벌 생태체험 관광 자원화 암석해안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친환경적 활용

서부산권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동강 하구기능 회복으로 생태환경 학습기능 철새 및 자연생태계 서식처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관광활동 철새관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속도 하단 부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 (추진중)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관람시설 조성
	녹산가덕도 (산업, 항만, 해양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항만·공단 조성으로 국제물류 생산의 중심기능 자연자원을 연계한 생태 관광 및 해양여가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물류·생산활동 생태관광 및 해양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전략적 용도로서 공간의 활성화 및 신항만 건설 가덕도 지역은 암석해안, 동백군생지 등 양호한 자연환경 보유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배후지 개발

부산광역시, 연안관리지역계획, p. 92-93, 2002. 1

4. 청년문화공간 조성의 방향

부산의 역동성과 첨단성을 활용한 특화가로를 조성해 활력과 젊음이 넘치는 청년문화공간을 구축한다. 젊은이들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부산대, 부경대 등 캠퍼스타운과 광안리, 해운대, 서면 등을 젊은이들의 광장으로 조성한다.

1) 유동성, 개방성, 해양성, 잡종성(Hybrid)의 거리 : 젊음의 문화공간인 대학로 및 경성대 앞, 부산대 앞, 동아대 앞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 육성한다. 부산대 앞, 경성대 앞, 사직운동장 거리, 서면지역을 패션, 의료, 대중문화의 중심, 광안리를 국제청년한류메카 육성하는 등 청년문화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

2) 디지털미디어 스트리트 조성 : 정보통신기술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특화된 거리조성을 확대. 남포동, 서면, 밀리오래 등 상가와 청년문화를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5. 주제가 있는 공간 조성의 방향

주제공원(Thema Park)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 공간이자 관광 산업의 주요 요충지이다. 부산시는 시정의 목표로 관광도시 부산을 육성하고자 하지만 자연적 관광자원 외에는 부산을 대표할만한 주제공원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 일탈감을 즐기려는 의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조류(Trend)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력의

재생산과 삶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표적 공간으로서 주제공원을 들 수 있으며, 주제공원은 연령별, 시간별 등 수요자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다기능·다목적 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

주제공원의 이 같은 중요성 외에도 사업성의 확보라는 경영차원에서도 성공적 사례를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제공원은 성공과 실패의 양면성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 실시 전의 전제적 고찰 요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주제공원은 현대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접근성(Accessibility)이 좋은 목적지(Destination)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의 경우는 주제공원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마련되지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부산의 주제공원은 부산의 상징성과 역사적 사건이 접목된 부산다운 공원이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의 역사적 상징은 현대사에 치중되어 있는데,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역사적 시설로 자갈치 시장, 금정산성, 가야문화 관련시설, 국제시장 등이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다. 부산의 역사적 사건으로 부산국제영화제, 피난역사(임시정부수립), 민주화 항쟁, 한국 최초의 개항 등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결론적으로 부산을 상징하는 역사문화공원은 과거 위주의 개념 보다는 근대·현대 위주로 중점을 잡을 수 있다. 또한, 부산의 주제공원 설립 시에는 수익성, 공공성, 교육성, 오락성, 문화성 등 5개 항목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부산의 역사문화 주제공원으로 적합한 시설로 근대 부산항 발달관, 조선통신사절단 자료관, 아시아 해양민속 전시관, 세계 미항 축소 조형물, 중국역사관, 일본역사관 등을 꼽았다.

<주제 공원 선호시설 조사>

시 설	세 부 시 설
전시시설	근대 부산항 발달관, 조선통신사절단 자료관, 한국시대별 민속촌, 아시아 해양민속 전시관, 세계 미항 축소 조형물, 중국역사관, 일본역사관, 왁스 뮤지엄
탐승물	다크라이드, 시뮬레이터
식음시설	자갈치 먹거리촌, 판자촌 먹거리촌, 아시아 먹거리촌
이벤트	장영실 과학 축제
영화	스튜디오 세트장

<부산지역내 주제공원의 성공적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 황영우, 부산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01-7.

Ⅲ. 관광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1. 부산의 관광 산업

1) 부산의 관광 자원

부산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청명하며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서 산·강·바다·온천·천연 해수욕장 등 다양한 자연관광자원과 사적지, 유적지, 각종 축제, 문화시설 등의 인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의 관광자원으로는 대한팔경의 하나이며, 1994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해운대를 비롯하여 태종대, 용두산 공원, 금강공원, 금정산성, 어린이대공원, 충렬사, 범어사, UN공원 등이 있고, 해수욕장 6개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과 시설들이 있다.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재래시장과 의류점, 면세점, 백화점 등이 발달하여 쇼핑관광의 선호지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사적지와 유적지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동래 및 수영야류 등 다양한 형태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 집적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인근의 울산과 경상남도의 수요를 합하면 대규모 시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공간이동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오늘날 부산은 동북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부산을 중심으로 항속 2시간 대의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이웃나라 도시들까지도 배후 시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배후 시장에 대한 잠재적 수요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배후 시장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부산을 찾고자 하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 부산은 국외적으로 환동해 경제권(부산~니카타~블라디보스톡)과 환황해 경제권(청도~상해~서울~부산~후쿠오카)이 교차하는 중심지로서, 세계 3대 관광송출국인 일본 및 거대한 관광 잠재시장인 중국과의 접근성, 그리고 400만 명의 내수시장을 비롯하여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주변 광역권 내수시장과 함께, 특히 국제규모의 해양 관광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을 감안할 때, 부산해양관광 개발의 경제성 확보는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목표시장(Target Market)을 보다 확대하여 흡인력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재 지정현황을 보면 최근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기장 죽성 해송과 부산역사박물관(구 美문화원)을 포함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40점, 시지정문화재 126점 등 총 203점(등록 문화재, 문화재 자료 포함)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197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정된 태종대 국민관광지를 포함하여 황령산과 해운대 등 총 3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다.

2000년 현재 문화행사와 관련된 공간으로 공연시설 27개, 미술관, 화랑 등 전시시설 49개 등이 있다.

<주요관광자원 현황>

구분	관광자원
공원·녹지 자원	· 금강공원, 올림픽공원, 달맞이공원, 중앙공원, 수미르공원, 용두산공원, 압남공원 등 · 불광산계곡, 흥연폭포, 회동수원지, 동백섬,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등
해양자원	· 다대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등 ·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태종대, 물운대 등
역사·문화 자원	· 장안사, 이길봉수대, 기장향교, 죽성왜성, 기장읍성, 해동용궁사, 노포동고분군, 금정산성, 삼절사, 만덕사지, 구포왜성, 강선대, 망미루, 동래향교, 충렬사 등 · 범어사, 병풍암 석불사 마애존불, 운수사, 정묘사, 대각사, 복천사 등 · 한국순교자기념관, 임시수도기념관, 백산기념관 등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수산과학관 등
생활자원	· 보수동 헌책방골목, 초량 상해의 거리, 생약건재상거리, 문화의 거리, 부전시장 등 · PIFF광장, 수영요트경기장, 사직종합운동장, 자갈치시장, 부전시장, 부산광역시청 등
축제	· 부산비엔날레(5~10월)/ 부산바다축제(8월)/ 부산국제락페스티벌(8월) · 부산국제영화제(10월)/ 자갈치문화관광축제(10월)/ 해맞이부산축제(12.31~1.1)

부산광역시(2002년) 시정백서(<http://www.metro.busan.kr>)

<문화재 지정현황>

203	5	18	4	7	1	5	1	63	13	46	4	36
-----	---	----	---	---	---	---	---	----	----	----	---	----

부산광역시, 2006

2) 부산의 관광산업 현황

우리나라 전체 외국관광객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수는 81년의 경우 전국 1093,214명 중 443,571명으로 40.6%이었으며, 80년대 중반에는 50%를 상회했다. 그러나 이후 타 지역들이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그 비중이 차츰 감소하여 2004년 현재 1,660,492명으로 28.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관광객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일본인이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46.9%)을 차지하며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96년을 정점으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 중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2004년 현재 12.7%) 성장잠재력이 큰 관광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지역인구에 편중되었었다면, 현재는 항공노선이 많은 서울을 경유하여 부산으로 유입되는 미국, 유럽지역의 관광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적별 외국인 입국현황을 보면 순수관광을 목적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모국방문을 겸한 관광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4년의 경우 관광목적이 68.57%인 1,138,623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외국 선원이 19.22%, 방문이 6.14%이다.

아울러 부산지역의 관광관련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관광숙박업 59개 업체, 여행사 607개업체, 관광객이용시설업 23개소, 관광편의시설업 105개소, 유원시설업 18개소 등 813개 업체가 있다.

3) 관광산업 발전의 국내외적 여건변화

국제적으로 21세기 국제정치 질서는 사상과 이념적 갈등에서 탈피, 개방화와 자유화의 기조 하에 실리를 추구하는 단일 세계체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경제체제는 물질·인적교류의 세계적 통합 망을 구축하고 국가 간 경쟁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관광여행은 특히 21세기 중심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생태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관광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별·지역별 문화 예술적 정체성을 토대로 한 독특한 관광 상품 개발과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관광 사업 또한 대두하고 있으며,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국제관광수요증가 전망과 범세계적 블록화 경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관광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민주의식 고취 및 각 계 각 층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화 시대의 정착으로 관광현상의 정치·사회적 발전기반이 확립되었고, 실버사회구조로의 진입과 주 5일 근무제 및 유급휴가제 정착 등 새로운 제도의 등장에 의하여 관광레저부문에 대한 다양한 수요분출이 예상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형 산업체제로의 구조적 전환 가운데 선진국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증가와 관광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인식 증대로 친환경적 관광개발의 제도적 정착과 생태 및 학술연구 등과 관련성이 큰 특별관심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쇼핑과 행락, 휴양 중심의 소극적 수동적 여가생활에서 역사와 문화·예술, 스포츠 등에 대한 경험적·지식 추구형의 레저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 국제공항, 항만,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확충에 의해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되고 있다. 남북 간의 인적, 물질 교류의 확대와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외국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내외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부산시 외래관광객 점유율>

연도	관 광 객 수		
	전국(A)	부산(B)	A/B(%)
1982	975,020	491,058	50.3
1986	1,695,972	871,512	52.5
1990	2,958,839	828,976	28
1999	4,659,785	1,281,190	20.0
2001	5,147,224	1,501,008	29.2
2002	5,347,328	2,000,439	37.4
2003	4,754,133	1,473,780	31
2004	5,818,298	1,660,492	28.5

부산광역시(2005), 시정백서

http://www.busan.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data/100book_2005/intro.htm

<국적별 부산방문 외래관광객 수>

연도별 국적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090,187	100	1,539,525	100	1,501,008	100	2,000,439	100	1,473,780	100	1,660,492	100
일본	520,051	47.7	690,039	44.8	679,829	45.3	892,418	44.6	608,611	41.3	779,314	46.9
러시아	135,429	12.4	78,646	5.1	64,902	4.3	106,269	5.3	77,608	5.3	50,337	3.0
중국	60,131	5.5	149,072	9.7	158,005	10.5	223,009	11.1	170,508	11.6	211,214	12.7
영국	9,137	0.8	18,531	1.2	18,412	1.2	21,041	1.1	14,310	1.0	18,871	1.1
프랑스	1,638	0.2	7,435	0.5	6,796	0.5	10,159	0.5	6,842	0.5	6,772	0.4
독일	7,505	0.7	18,791	1.2	19,098	1.3	23,381	1.2	14,608	1.0	16,364	1.0
미국	23,275	2.1	110,063	7.1	92,652	6.2	120,781	6.0	67,545	4.6	76,728	4.6
캐나다	1,582	0.1	12,398	0.8	13,958	0.9	16,269	0.8	13,926	0.9	14,837	0.9
호주	1,969	0.2	7,757	0.5	9,286	0.6	11,624	0.6	6,746	0.5	8,232	0.5
교포	85,853	7.9	57,698	3.7	62,652	4.2	111,852	5.6	75,582	5.1	75,151	4.5
기타	243,617	22.4	389,095	25.4	375,418	25.0	463,636	23.2	417,494	28.2	402,672	24.4

부산광역시(2005), 시정백서

<목적별 부산방문 외래관광객 수>

연도별 목적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068,088	100	1,539,525	100	1,501,008	100	2,000,439	100	1,473,780	100	1,660,492
관광	645,774	66.2	982,092	63.9	926,037	61.7	1,305,904	65.3	908,114	61.61	1,138,623	68.57
방문	110,820	9.7	95,328	6.2	95,165	6.4	132,731	6.7	98,112	6.66	102,081	6.14
상용	39,365	2.8	30,026	2.0	33,020	2.2	52,855	2.6	49,691	3.37	57,633	3.47
외교공용	5,791	0.5	1,191	0.1	1,734	0.1	3,828	0.2	2,803	0.19	3,634	0.22
문화·체육·종교	-	-	-	-	-	-	-	-	-	-	-	-
외국선원·승무원	273,861	25.1	418,076	26.9	430,441	28.7	472,544	23.6	383,405	26.02	319,219	19.22
기타	18,736	1.7	12,812	0.9	14,611	0.9	32,577	1.6	31,655	2.15	39,302	2.36

부산광역시(2005), 시정백서

2. 부산 관광산업 발전의 기본 전략

부산광역시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국내 여타지역과는 물론 외국과의 교통망이 정비되어 있으며, 특히 부산항은 국내 제1의 무역 및 여객항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출입국이 많은 관문이다. 천혜의 해양자원을 지닌 환태평양권의 관문도시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의 본격화에 의한 관광인프라가 확충되고 해양관광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대규모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양관광자원이 도시지역 내 입지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수준이 국제수준에 이르고 그 개최장소 역시 도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1,000만 명에 달하는 영남권 거대 시장을 토대로 부산·영남권의 중추적 거점관광지역으로서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고, 더불어 월드컵과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이벤트 행사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와 지명도의 상승은 부산이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 부산 관광계획의 기본방향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산은 동북아 해양관광거점도시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태평양권의 관문도시로 크루즈 취항 및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동북아 해양관광거점도시로 육성될 것이고, 경부고속철도의 기종점으로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 역할의 증대와 항공교통의 연계성 증대로 동아시아 해양관광의 중심성을 확보할 것이다. 동북아 4개국을 연계하는 크루즈관광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크루즈 전용 터미널 건설추진과 크루즈 연계강화를 위한 상해, 후쿠오카 등의 해안도시와의 협력·제휴

한다. 해양스포츠 및 해양체험관광기능의 강화를 위해 동부산지역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수영만 지역과 연계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산업관광 · 해양관광 기능의 극대화를 위해 서부산 지역에 경마장,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해양을 주제로 하는 체험 · 교육관광기능 강화를 위한 해양박물관, 패총박물관 등 테마형 전시시설을 조성한다. 해양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와 해운대 · 광안리 등 도시 내 해수욕장 주변 지역의 해안환경을 정비한다. 레저형 해양휴양도시로서의 특성화를 위해 해안구역을 운동, 여가시설 등을 갖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정화해 나간다. 부산관광산업 발전전략에 있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구체적 분야는 ① 해양관광, ② 생태관광, ③ 시티투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산의 관광산업발전전략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 : 부산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개발을 통하여 문화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살린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프로그램 개발한다.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촌, 선사시대테마박물관을 조성한다.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전쟁에 대한 독특한 체험 · 관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UN공원을 역사적 관광 명소로 활용한다. 부산을 방문하는 내외국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명물거리, 문화관광테마거리, 도시형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한다.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 추진과 쇼핑관광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 개선한다. 영상 · 영화산업의 체험과 위락관광기능 강화를 위한 영상정보단지, 영화박물관, 영화제작소 등을 조성한다. 부산국제영화제, 바다축제, 국제 락페스티벌, 국제아트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시킨다. 남포동, 광복동 일대 극장밀집지역의 영화테마거리 조성을 통하여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시설로 활용한다.

나. 지식기반 관광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관리체계의 구축과 선진화된 관광시스템을 확립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 국내 외적 명성과 항구도시로의 발달사적 전통을 지닌 시가지 일원을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 관광공간으로 육성한다. 외래 관광객의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정비 및 확충과 해외 신규노선 취항을 확대한다. 영상정보단지, 센텀시티, 해양리조트, 휴양리조트 조성지역에 경전철,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관광객 이동과 접근환경을 개선한다. 경관이 우수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관광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조망대, 휴게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국제교류도시로서 중추기능과 국제업무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을 확충 및 개선한다. 국제이벤트의 개최로 인해 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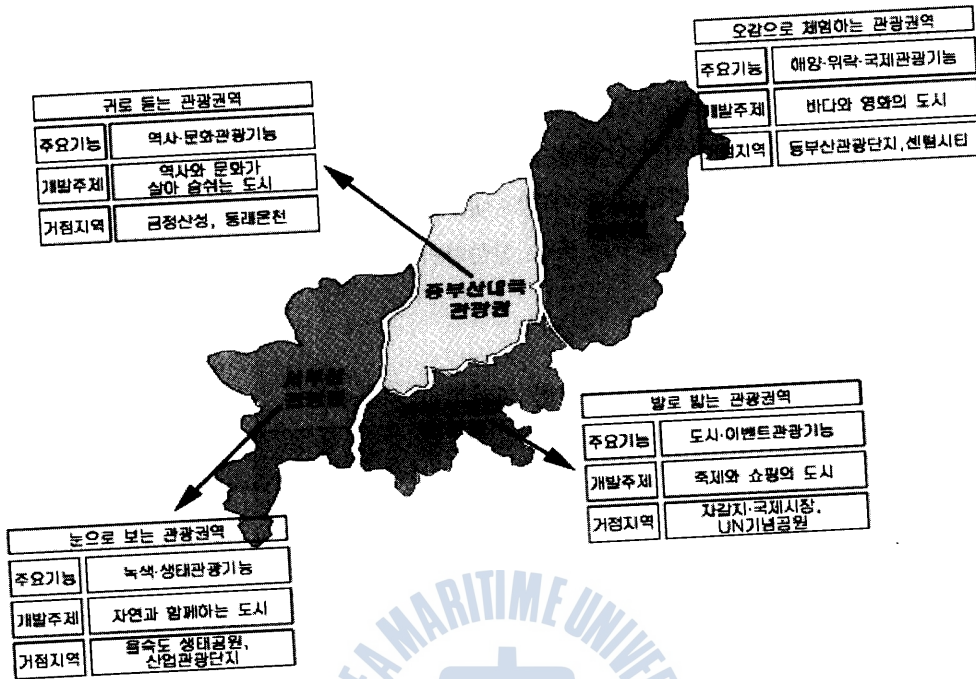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특급호텔 건설과 다양한 숙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 시설 및 전통숙박시설을 육성한다.

다. 여가 및 관광자원의 확충을 통한 광역관광권 체계 구축 : ㉠ 부산의 해양관광지대와 김해문화관광권이 연계된 관광축 설정 - 부산(자갈치시장, 해운대, 역사문화촌, 동부산관광단지)~김해(도예촌, 가야민속촌). ㉡ 권역내의 다양한 관광자원, 생활, 문화 등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권역간(부산~경남~울산(BKU)) 상호보완에 의해 매력 있는 관광벨트 형성 - 부산(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BEXCO, 복천동박물관)~경남(창원F-3경기장, 경륜장, 통영제승당, 거제포로수용소, 부곡온천, 언양 자수정)~울산(현대자동차, 현대조선, 반구대암각화). ㉢ 기존 관광지의 정비 보완, 신규 관광자원의 발굴·활용, 관광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며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제고, 개발이 완료된 신규관광지로 BEXCO, 해양수족관과 개발 중이거나 유치가 진행 중인 동부산관광 단지(역사문화촌 포함), 센텀시티, UN기념공원, 국립해양박물관, 광안대로, 좌수영성지 및 수영사적공원 등의 개발, 조성. ㉣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에서 정부가确定的 부산지역 사업으로 동부산 관광단지, 가덕지구개발사업, 을숙도 생태공원, 동삼동해양문화원 조성 등의 국책사업 적극 추진

라.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중심지로 개발 : 관광자원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임을 인식하여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보호·이용·관리를 강화한다. 친환경 관광도시 이미지제고 및 관광객의 자연생태 체험기회 제공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을숙도 생태공원을 개발한다. 오륙도와 용호농장 이전적지 해안역을 포괄하는 일대를 해안 및 해양생태계 학습을 위한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2)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부문별 계획에 있어서는 지역특성과 자원의 유형에 따라 4개의 관광권역을 설정한다. 이는 관광개발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관광자원과 시설의 분포(동질성) 및 특성, 권역별 루트화 가능성(권역 내/권역 간), 관광객의 접근성과 이동행태, 집행과정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계획의 집행단위인 행정구역·관광자원의 특성·관광객 규모에 따른 관광기능의 지역적 안배, 지역관광특성의 강화 등을 고려한 기준과 원칙, 부산의 관광자원 및 문화적 특성, 지역별 입지, 계획집행단위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동부산관광권, 중부산해양관광권, 중부산내륙관광권, 서부산관광권의 4개 관광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권역별 개발방향과 특화전략

- ① 동부산관광권(휴양, 해양스포츠 중심의 해양위락복합관광 기능) : 해운대 관광특구제도를 활성화시켜 국제관광의 거점으로 육성. 일광지구의 해양레포츠단지, 기장의 산악형 휴식·문화기능, 대변·시랑지구의 테마파크형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을 통한 국제적인 복합해양휴양지 조성, 동부산관광단지조성. 기존관광지를 정비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 제고. 기존 여항시설의 보호와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촌개발계획 수립.
- ② 중부산해양관광권(도심위락관광기능, 국제교류 및 문화예술관광 기능) : 기존의 자연과 인문환경을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개발의 경제성 제고 및 환경보호. 광안리·이기대·오륙도·용호농장 해안구역·신선대 일대의 해안환경 정비를 통한 환경친화적 생태관광공간으로 개발. 해양휴양 및 복합레포츠센터로서의 용호씨사이드 개발. UN기념공원 테마파크화와 시립박물관, 문화회관의 연계를 통한 문화적 거점 공간 확립. 북항의 항만기능 이전에 따른 친수 공간 활용, 고속철도·지하철·여객터미널 상호연계. 초량외국인 상가와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등의 재정비를 통한 내외국인 전문 쇼핑단지로서 기능부여. 동북아 4개국 연계 국제크루즈 전용터미널 건설 추진과 금강산 유람선 및 한·일연안크루즈 취항 여건 확충.
- ③ 중부산내륙관광권(도시관광지원 기능, 국민생활관광 기능) : 금정산 지역을 산악 자연휴양관광권으로 조성. 산악형 관광자원의 연계와 이용시설의 정비를 통해 관광객의 이용편의

도모. 종합적인 레저스포츠 휴양기능의 강화. 시청 등 중추기능의 입지에 의한 연산동·서면 등지의 도심형 관광 기능 강화.

④ 서부산관광권(산업관광기능, 생태체험관광기능) : 관광지의 정비와 지정으로 관광객의 이용편의 도모. 해양관광자원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산업휴양관광권으로 조성. 거제 해양관광단지와의 기능적 보완관계를 위한 가덕도 내 해양휴양단지 조성. 낙동강 하구의 기능회복으로 가덕도와 연계한 생태관광루트 조성. 신항만건설과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국제항로기능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조성.

<권역별 관광특화 전략>

권역	특화 전략
동부산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변휴양관광, 컨벤션관광, 고급숙박 alcc 국제적 식음료 중심의 night-life 관광 · 온천 및 보양, 영상주제, 해상스포츠, 해양리조트, 골프 등 스포츠 · 아시아민속문화
중부산 해양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위터프론트 여가관광, 해상 크루즈, 해양휴양 및 레포츠관광거점 · 청정해양 및 자연휴양 관광, 북항의 친수공간화 · UN기념공원의 테마파크화, 용호씨사이드 해양휴양 및 복합레포츠 센타 · 광안리배후상권의 night-life 관광
중부산 내륙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역사 중심관광, 산악레크레이션벨트 구상, 스포츠 중심의 이벤트 관광 · 온천·보양, 엔터테인먼트·금융·쇼핑·비즈니스 중심의 도심관광
서부산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체험 중심의 생태관광 · 물류지원의 여가관광, 해변휴양 · Techno-Science산업 패키지 관광

나. 관광유형별 관광체계와 개발계획

부산의 관광자원을 입지적 특성과 관광활동의 유형에 따라 도시형, 산악형, 해양형, 역사문화형, 축제·이벤트 참가형, 특별관심형 관광 등 6대 관광체계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도시형 관광체계 : 도시 편의 및 중심시설, 각종 매력물, 고유 이미지에 의하여 유발되는 도시형 관광. 관광활동의 유형으로는 쇼핑관광, 컨벤션관광, 카지노, 야경관광, 의료관광 등이 있음.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등 재래시장 정비와 광복동 일대 및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쇼핑관광과 서면일대 의료관광. 국제회의장, 상징시설, 쇼핑·위락시설, 문화관광테마거리, 센텀시티, 역사문화주제공원, 해상공원, 해양박물관 등 각종 비즈니스 및 복합목적 관광시설.

② 산악형 관광체계 : 금정산, 백양산, 구덕산 및 천마산, 장산~달음산~불광산 등 산악자원을 이용한 관광 체계. 관광활동으로는 등반활동, 산악스포츠활동 등의 유형. 대청공원~중앙공

원~가양유원지/성지곡~금정산성~동래읍성~북천동고분군/장산~달음산~불광산. 다양한 등반활동지원 시설, 민속촌, 향토역사관, 청소년수련장, 고분공원, 어리이대공원, 문화유적 및 스포츠형 여가공간 도입.

③ 해양형 관광체계 : 바다와 강을 주제로 한 워터프론트형 해양관광체계. 해양관광활동의 유형으로는 해양스포츠활동, 해양체험관광활동, 크루즈, 해양을 주제로 한 체험·교육활동. 신선대~오륙도~이기대~광안리~수영만~해운대~송정~대변~일광을 연결한 해양관광벨트화. 해변문화세터, 해양전망, 해상스포츠, 유흥오락, 해변온천장, 수족관, 해수욕장, 해상호텔, 수변스포츠센터, 체육공원, 식물원, 생태공원, 수변피크닉장, 관광어촌 등 국제관광객과 내국인을 위한 관광휴양지 조성.

④ 역사문화형 관광체계 : 유·무형의 문화재, 풍속, 생활, 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형 관광체계를 통해 경쟁력 확보. 부산의 생활사를 경험하는 체험학습관광, 민속행사·민속놀이 등. 세계평화와 자유수호의 대표적 명소로 UN기념공원을 테마파크로 조성. 북천동고분일대와 동래문화사적공원~수영사적공원 관광루트화. 테마박물관, 역사문화관, 전통고유마을, 문화관광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여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 확충.

⑤ 축제·이벤트 참가형 관광체계 : 부산에서 한해동안 개최되는 경쟁력 있는 문화행사와 축제 등의 관광자원화 촉진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 영상·영화산업의 직간접 경험과 축제 및 이벤트 참가를 통한 체험활동.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개최되는 남포동극장가 일대·서면·수영만 요트경기장과 부산바다축제가 개최되는 6개 해수욕장, 자갈치문화관광축제가 개최되는 자갈치 시장일대, UN공원 주변거리등의 국제문화관광 테마거리화. 영상정보단지, 국제적 영상테마파크, 영화박물관, 영화제작소, 영화테마공원, 미니어처월드, 영상·쇼핑복합센터 등의 건립.

⑥ 특별관심형 관광체계 : 도시문명과 양호한 자연생태계, 역사·문화적 전통과 현대 산업의 복합적 발달에 따라 관심영역별 개성 있는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특별한 주제를 토대로 행해지는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생태, 교육, 문화, 사회관광 등. 낙동강~을숙도~가덕도 지역에 생태관광 학습장을 위한 Forest Park, 자연학습원, 야외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 교육관광 여건 조성. 2002 AG/WC 등을 거행하는 경기장을 축으로 각종 스포츠를 관람·체험하고 연마할 수 있는 체육 공원화. 경제자유구역~녹산국가산업단지~신호지방산업단지~지사과학단지를 과학기술의 체득과 현장실습 및 견학을 할 수 있는 산업과학 패키지관광의 요람으로 육성.

<관광유형별 개발방향>

유형	권역	대상지구	자원성 및 잠재력	개발방향
도시형	광복권 역세권 서면권	광복, 남포동, 대신공원 중앙, 초량동 서면	쇼핑, 관람, 레크레이션, 도시경관 쇼핑, 관람, 유흥 쇼핑, 관람, 유흥	관광쇼핑, 문화의 거리 시민행락지 관광쇼핑, 업무단지 관광쇼핑, 업무단지, 정보센터
산악형	동래온 천 금정산 성 기장권	온천장 금정산 불광산 · 달음 산	온천, 쇼핑, 유흥, 문화재 산악경관, 사적 및 명승 산악경관	온천휴양지 민속촌 공원, 휴양지
해양형	기장권	일 광 기 장 임 량	해수욕장, 해변휴양, 해양스포츠 해수욕장, 해변휴양, 해양스포츠 해수욕장, 해변휴양	해변휴양단지 해변휴양단지, 골프장 해변휴양단지, 고리원전
	해운대 권	센텀시티 수영매립지 송 정 청사포 해운대	국제업무, 공원스포츠, 회의, 관광 해수욕장, 해양레크레이션, 관람, 회 의 해변휴양, 해양레크리에이션 해변휴양, 공원스포츠, 해양레크리에 이션 해양경관, 해수욕장, 온천	국제업무, 교류, 시민행락지 해양스포츠 위락단지 해변휴양단지 해변휴양단지 해변온천센터
	광안 · 민락권	민락매립지	해양레크리에이션 해변휴양, 레포츠	해상위락단지 해양복합센터
	신선대 이기대 권	신선대 이기대 오륙도 용포씨사이드	해변휴양, 공원스포츠 해양경관, 관람 · 관광, 시민휴식시설 해양경관, 바다낚시 해양휴양, 레포츠	해변휴양단지 해안공원 해안공원 해양복합센터
	태 중 대 · 영도권	동삼동	해양경관, 패총	관광단지
	낙동강 원	가덕도 을숙도 삼락동	해양경관, 휴양, 낚시 낙동강 연안, 철새도래, 도시행락 낙동강 고수부지, 스포츠	국제관광단지(오락 및 휴양) 시민행락, 조류공원 수변 스포츠단지
역사 문화형	북천오 륜 동래권 수영권	고분일대 동래문화사적 공원 수영문화사적 공원 UN공원	고분군, 문화재 문화재, 역사체험학습 문화재, 역사체험학습, 민속행사놀이 역사, 문화, 교육의 장	역사유적지 민속공원 민속공원, 민속촌 주제공원
축제 · 이벤트 참가형	광복권 서면권 해양권	남포동, 광복동 서면일대 해수욕장 근처	영상, 영화, 문화위락기능 영화, 쇼팽기능 문화, 해양레크레이션	문화관광테마거리, 영화관련 박물관 영상쇼핑복합센터 문화거리, 해양휴양시설
특별 관심형	을숙도 권 사직권 녹산가 덕	낙동강, 을숙도 AG/WC경기장 녹산, 가덕신항 만	생태자연학습장 스포츠연마, 체험기능 첨단과학기술 경험 및 교육	자연학습원 종합체육공원 종합과학공원시설

다. 해양관광

① 해양관광 적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주말 레저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민들의 여가패턴의 변화, 레저의 일상화, 여가활동의 다양화와 광역화 등이 예상되는데, 이는 시민의 생활시간 구조를 변경시켜 기존의 여가문화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증가된 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 쉴 수 있는 공간을 정비하거나 조성할 필요성도 있다.

배산임해(背山臨海)의 지형에 있는 부산은 예로부터 좋은 산, 좋은 바다, 좋은 강을 함께 갖춘 삼포지향(三抱之鄕)으로 특징 지워질 정도로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지니고 있어 곳곳에 시민들의 여가공간이 산재하고 있다. 특히, 바다로 둘러싸인 부산 연안에는 바다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무대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친수공간이 산재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여가문화를 함유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되고 있다. 부산연안의 친수공간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전국으로부터 방문하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쾌적한 여가문화의 영위를 위한 제반환경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우려되는 연안 친수공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

도시해안의 친수공간은 항만시설, 공장 등과 같은 생산기능의 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수공간을 거주·휴식 공간 등 생활공간으로서 정비하고자 하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공간특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육역(陸域)과 수역(水域)이 융합된 친수공간에는 방향성, 완결성, 레저성 등과 같은 물리적 요소와 개방성, 어메니티성 등과 같은 정신적 요소로 구분되는 다양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부산과 같이 긴 해안선으로 구성된 친수공간에서는 해양 레크레이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다. 해양 레크레이션 활동은 주로 해안이나 해양을 활동공간으로 하는 레크레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해수욕, 낚시 등과 같이 오래전부터 손쉽게 즐겨온 활동에서부터 서핑, 스쿠버다이빙 등과 같이 최근 젊은 층에 인기 있는 레크레이션 활동과 수족관 관람, 바다를 조망하고 바다의 분위기를 즐기는 등과 같은 어메니티 활동까지 포함한다. 해양 레크레이션 활동 중 해수욕은 여름철 2개월 정도에만 행해지는 반면에 요트, 모터보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은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걸쳐 행해지고 있다.(양진우, 2004)

② 해양관광의 조건

정보·해양·환경·관광산업 등 소위 지구촌 4대산업의 도래와 함께 세계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 동북아 관광시장의 급부상 등 국내외 관광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소득수준 향상, 주 5일제 근무 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등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부산의 경우 2002년 아시안게임과 2002년 한·일 W.C, 국제영화제 등 대규모의 국제적 이벤트 개최와 함께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부산 방문 외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세계 3대 산업의 하나로 전 세계 고용의 약 1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30년 간 연평균 12%의 성장을 기록해 온 관광산업 중에서도 해양관광이 가장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무역항이라는 높은 브랜드를 지니고 있는 부산은 국제적인 해양관광상품의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경쟁력을 가질만한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상품은 전무한 실정에 있다. 이는 지역경계의 약 1/3이 해양과 면해있는 부산이 천혜의 인문·자연적 해양관광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도시나 다름없는 내륙관광에 치중해 온 탓도 크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내륙 중심적 가치관의 팽배에 따른 해양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중앙정부의 바다관리 다원화에 따른 임해도시 고유의 지역적 기능 발휘의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이 천혜의 기후조건을 지닌 동남아 각국의 해양관광상품과 이웃 일본의 선진 해양관광상품 사이에서 국내·외 해양관광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해양관광상품개발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부산해안은 태백산맥의 지맥인 금정산맥과 금련산맥, 신어산맥의 끝자락이 대한해협에 몰려 형성된 해안으로 해안선의 출입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안을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 기반암으로 되어 있는 암석 해안 및 수려한 모래로 된 사질해안 등으로 리아스식 해안선 형태와 함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암석해안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해안으로서 깎아 세운 듯 한 해식에, 각종 해식동 등이 전체적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해운대의 고두말과 동백섬, 우암반도의 대부분, 오류도, 영도, 장군반도, 두송반도, 물운반도, 가덕도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부산연안은 만입(灣入), 소반도(小半島), 도서(島嶼)가 풍부하고 해안 배후에는 고도 5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가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해안선 길이는 육지부 해안선 길이 162.3km, 가덕도 해안선 35.3km, 영도 해안선 21.7km를 합하여 총 219.5km에 이른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항만개발과 매립으로 인하여 자연해안이 인공구조로 변화되어 1999년 현재 인공해안은 전체 해안선의

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해안은 전체 해안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1.2km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 동구 관내의 해안에는 자연해안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항한 항만인 부산항의 개항 당시 교역은 활발하였으나, 항만 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항만 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1898년 부산해관(현 세관) 부지 매립공사 및 확장 공사를 시작한 것이 매립의 시초이다. 개항 이후 광복 이전 시기에는 제1부두 축조를 시작하여 수차례 해안매립을 실시하였고, 광복이후에도 매립에 의하여 부산 시가지 면적의 약 3%에 달하는 7,101천㎡의 토지가 조성되었다. 이처럼 연안 습지를 제외한 부산지역의 해안매립이 대부분 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기성 항만의 대부분이 매립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부산연안에 산재하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25개소를 꼽을 수 있다. 이를 구·군로 살펴 보면, 강서구의 가덕도와 낙동강 하구일원, 사하구의 다대포 해수욕장과 물운대, 서구의 암남공원과 송도해수욕장, 영도구의 태종대와 절영 해안 산책로, 중구의 수미르공원, 남구의 이기대, 신선대, 오륙도, 수영구의 광안리 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 해운대구의 동백섬, 해운대 해수욕장, 달맞이고개, 청사포항, 송정 해수욕장, 기장군의 시랑대, 오랑대, 대변항, 황학대, 일광 해수욕장, 임랑 해수욕장이다.

전지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교역의 증가로 2000년도 국제관광객은 6억 6,800만 명에 달하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미래 관광수요 형태는 육지중심의 내륙관광에서 벗어나 해양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하고, 이용하는 해양관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해양관광은 해수욕 중심의 단순한 패턴이지만, 참여인구가 증가하고 참여구조도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레저백서(2003)에서는 관광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국내 레저시장 규모가 2004년에 22조 6000억원, 2010년에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관광 수요는 해양관광에 참여하는 인구의 변화로 추정할 수 있는데, 해양수산부(2001)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관광 참여인구는 2010년에 가서는 전체 관광 참여 인구의 약 31.4% 정도, 2020년에 가서는 전체 관광인구의 약 40.8% 정도가 해양관광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평양과 면한 219.5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곧바로 연결되고, 연간 약 2,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6개의 천연해수욕장이 입지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한 세계수준의 요트경기장과 함께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관광특구(전국 22개소 지정) 중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해운대해수욕장 일원의

해양성 관광특구(해운대관광특구)를 보유하고 있다.(최도석, 2004)

부산의 해양관광자원 및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부산에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를 비롯하여 온천,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함께 농·어촌과 항만물류, 자동차 등 첨단도시 산업이 공존하고, 산·바다·강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 세계에서 1곳 밖에는 없는 UN 묘지공원을 비롯하여 독창적이고 차별성 높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국제영화제(PIFF), 자갈치문화관광축제, 국제락페스티벌, 바다축제, 기장멸치축제 등 독특한 국제규모의 이벤트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해양성 문화예술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부산의 해양관광의 발전 잠재력은 해양관광 개발 및 이용에 유리한 자연조건, 국제교통의 접근성, 철도교통 접근성, 내륙교통 접근성, 국내해상교통 접근성, 주변권의 거대 관광 잠재시장 입지 등에서 모두 우수한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라. 생태관광

부산광역시에는 을숙도 생태공원조성, 낙동강둔치 재정비, 서낙동강 정비 등과 같이 낙동강 하구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생태복원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러한 복원계획에는 이 지역을 생태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생태관광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낙동강 하구지역은 갯벌과 습지의 생물 다양성, 풍부한 수산자원, 철새도래지 등 천혜의 자연 보고(寶庫)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상기 계획들은 낙동강 하구지역에 대한 생태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 계획을 비롯한 관련 계획들이 의도한 바대로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면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종합적인 검토와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생태관광 도입에서부터 운영, 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오동하·송교육·강미희, 2004)

생태관광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방문하여 자연을 감상하고 배우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키면서 자원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책임을 동반하는 관광'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① 생태관광자원 현황 : 해양자원(태종대, 물운대, 이기대, 오륙도, 가덕도, 고래 등), 산악자원(금정산, 장산, 달음산 등), 하천 및 하천생태계자원(낙동강하구 삼각주, 서낙동강 하천생태계, 철새도래지, 습지 등), 역사·문화자원 등이 있다.

단일한 생태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을숙도

를 포함한 낙동강하구역, 금정산 일원이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산지역에서의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은 권역별, 테마별로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로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㉓ 습지 및 철새 관광 : 낙동강하구 - 주남저수지 - 창녕 우포늪, 을숙도를 중심으로 낙동강 하구역 생태관광지대
- ㉔ 바다와 연안 생태계 : 가덕도 - 고성(상족리) - 거제 (해금강) - 통영(한려수도), 몰운대 - 태종대 - 오륙도 - 신선대 - 이기대 - 해운대, 섬생태계 탐방 - 3개의 유인도를 포함한 39개의 섬
- ㉕ 생태-역사 복합관광 : 범어사 - 금정산(등나무군락, 북문, 고당봉) - 동래 온천, 작천정 - 석남사 - 얼음골 - 표충사 - 밀양강변 출발
- ㉖ 낙동강 수상관광 : 낙동강하구 - 물금, 삼랑진
- ㉗ 고래관광 : 고래보호조치로 인해 최근 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동해안 일대의 고래를 관찰하는 프로그램

<부산의 주요 생태관광대상지 및 자원>

대 상 지	주 요 생 태 관 광 자 원
가 덕 도	• 해안경관, 식생(동백나무 군생지, 곰솔 군락) • 문화재(가덕진성, 가적왜성, 천성진성, 가덕도 석화비)
두 도	• 도시자연공원 지정·갈매기 등 바다새의 집합지 • 동백나무, 삵죽이, 해송 등 자생
오 륝 도	• 부산시 기념물 22호, 해안경관 • 지질학적 특성, 동굴, 갈매기
을 숙 도	• 천연기념물 179호 낙동강 철새도래지의 중심 • 하구생태계, 갈대
주 전 자 섬	• 해양생태계, 갈대
금 정 산	• 600m 내외의 봉우리 다수 • 금샘, 고당봉, 범어사(등나무 군락) • 울창한 숲, 약수터, 산성마을
몰 운 대	• 기암괴석, 울창한 숲 • 해안경관, 90여종의 식생 • 조류(삼광조, 솔개, 갈매기, 바다쇠오리 등)
태 종 대	• 암석절벽(신선바위, 망부석), 해안경관 • 120종의 낙엽수, 원시림 상태의 숲 • 60여종의 조류 관찰
낙동강 하구	• 을숙도, 진우도 등 삼각주 • 세계적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179호) • 하구습지생태계 및 생태계의 천이 • 서낙동강 하천생태계
신 선 대	• 해식애와 해식동의 해안절경 • 송림, 상록활엽수림, 낙엽활엽수림 • 매미둘기, 떼까치, 바다쇠오리, 갈매기 등 조류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의 문화재; 최해군, 1990

<부산지역 생태관광 대상지의 상품화 잠재요소>

대 상 지	주 요 상 품 화 잠 재 요 소
가 덕 도	• 경관 독특성·동식물매력도·관찰가능성·문화자원 흥미도·접근성
두 도	• 경관 독특성·관찰가능성·보호지역의 유인력·주위환경 매력성
오 룩 도	• 경관 독특성·관찰가능성·주위환경 매력성·보호지역 유인력·연계성·접근성
을 숙 도	• 동식물 매력도·관찰가능성·주위환경 매력성· 보호지역 유인력·연계성·접근성
주 전 자 섬	• 문화자원 흥미도
급 정 산	• 경관 독특성·관찰가능성·동식물 매력도·관찰가능성·접근성·연계성
물 운 대	• 경관 독특성·관찰가능성·동식물 매력도·문화자원 흥미도·접근성·연계성
태 중 대	• 경관 독특성·관찰가능성·동식물매력도·접근성·연계성
낙동강 하구	• 경관 독특성·동식물매력성·관찰가능성·보호지역 유인력·접근성·연계성
신 선 대	• 경관 독특성·관찰가능성·접근성

마. 시티투어

시티투어는 도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원을 가장 저렴하고 단시간에 보여줌으로써 내방자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보여주는 시티투어는 도시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가 지닌 매력을 짧은 시간에 보여줌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우석봉·조은정, 2003)

도시 관광이란 도시의 각종 매력물, 편의시설, 도시이미지를 대상으로 도시 거주민과 외부방문객이 실천하는 관광활동을 의미한다. 즉, 도시라는 텍스트(도시 자체)가 주요 관광지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의 대도시들은 중요한 관광목적지의 하나가 되었다. 전통적인 관광형태가 없던 도시에서 관광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빈틈없는 관측과 인위적인 관광매력물의 개발을 통해 도시를 그들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차별화 시켰기 때문이다.

도시의 매력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품에 부가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여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현재의 상품이 더 널리 알려지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마다 많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도시 관광 상품의 구성은 도시마다 그리고 관광 상품마다 차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 관광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로 사람들이 도시를 방문한 동기, 여러 동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좀 더 자세한 동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시 관광이 존재하고 활성화된다는 것은 도시가 문화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적이며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울러 도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시생활에 중요한 자극과 다양성의 요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티투어를 위한 부산의 요건은 무엇인가? 부산이라는 도시자원의 매력성이다. 시티투어가 구성되기 위해서 상품개발 이전에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관광 동기나 관광행동을 유발하도록 매력성과 유인성을 갖추어 관광객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무형의 소재자원들이다. 특히 도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경제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질성 및 독특성 그리고 다른 자원들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관광자원은 본질적으로 관광욕구와 관광의도를 가진 수요자를 유인하는 관광의 소재인데 관광수요자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므로 자원 역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자원이라도 다른 자원과 결합하여 또 다른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관광자원의 가치는 시대와 시간의 변화, 지역의 변화, 공간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인종적 요소, 종교적 요소, 역사적 요소, 문화적 요소, 국토의 여건 등에 의하여 그 가치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관광객의 주관에 의해 관광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광 자원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시티투어 차량이나 전문안내(원) 확보와 안내시스템 구축 역시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IV. 나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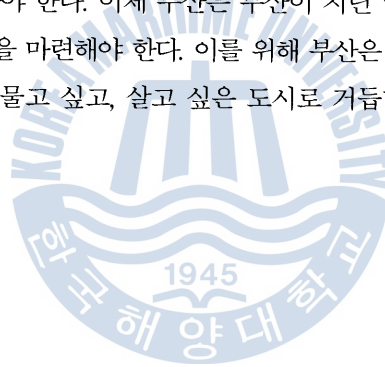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관적 특성이 지역의 경쟁력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그 주변환경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는 기존 도시의 획일적인 경관을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역사성과 독특성, 상징성 등을 통해 다양하고 특징적인 것으로 연출할 수 있으며, 역사자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도시경관, 도시이미지 연출 등의 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부산의 특색에 부합하는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한 문화인프라 구축과 친숙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이 도시개발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역사문화 공간, 생태문화 공간, 친수 공간, 청년문화 공간, 테마가 있는 공간 등 역사와 문화가 쾌적한 생태 환경 속에 어우러진 부산의 도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도시적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삼을 수 있다.

현재 부산은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활성화를 꾀할 필요성을 간절한 도시이다. 위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했는데, 이러한 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구축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공간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그 도시를 우연히 방문하는 사람에게나 대단히 감명 깊은 속살과도 같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늑하고 편리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연한 방문객에 대해서도 다시 찾고 싶은 느낌이 드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의 공간은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이고 정서적이어야 한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산업화가 시작된 도시로 전통적으로 많은 산업적 기반을 가져왔다. 아울러 일찍 서구를 경험하면서 물류(物流)와 문류(文流)가 활발히 벌어졌던 곳이다. 하지만, 자본화의 가속화로 인한 서울 집중화 현상의 부작용과 그늘에 가려 서서히 퇴락해 가는 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제 부산은 퇴락과 떠남의 도시에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돌아오는 공간으로 진화해 가야 한다. 이제 부산은 부산이 지닌 역사적, 지리적, 자연적 조건을 최대로 활용해 제2의 개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은 해양의 도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 재창조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2005/6, 서울.
- 김경수·양진우·박미숙, 『부산지역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04.11, 부산발전연구원.
- 박재환, 『부산의 생활문화와 새로운 시민의식의 함양』, 2005.03, 부산을 바꾸자 포럼사무국 부산광역시,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제4차 국토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장기 도시계획-』, 2004.12, 부산광역시.
-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9, 부산.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을 바꾸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 부산광역시, 2005/6, 부산.
- 송교육·제윤미, 『연구 2004-20 낙동강 하구역의 생태·경제학적 가치평가와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4.12, 부산발전연구원.
- 신용은, 「교통정책과 삶의 질」, 부산발전연구원-대한교통학회·부산·울산·경남지회 공동국제 심포지엄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정책의 공공성 확보방안』, 부산발전연구원, 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2003.10.1
- 양진우, 『부산연안 친수공간의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2004.12, 부산발전연구원
- 오동하·송교육·강미희, 『낙동강 하구지역의 생태관광지로서의 전망과 전략』, 2004.03, 부산발전연구원
- 우석봉·조은정 「부산지역 시티투어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 105 연구 2003-25, 부산발전연구원 2003.11
- 우석봉·주수현·김경수, 『문화테마파크 조성 기본 계획』, 2004.02, 부산광역시.
- 이광국·황영우, 『부산 도시하천 경관관리방안』, 1999.2, 부산발전연구원.
- 이동현, 『부산의 해안경관 실태와 개선방안』, 2004/9~10, 부산발전포럼.
- 이동현·박윤미, 『부산지역 역사문화환경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2004.01, 부산발전연구원.
- 이석환, 「부산의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이성호, 「釜山市 都市景觀의 變化 및 問題點 考察에 관한 研究」, 도시항만분과위원회
- 임 호, 『부산권 생태관광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1999.12, 부산발전연구원.
- 조명래, 『서울연구-유연적 산업화와 새로운 도시사회정치』, 한울, 1995/7, 서울.
- 주경업, 『역사와 문화 현장체험 부산을 배웁시다』, 2004/4, 부산민학회, 부산.

- 최도석,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전략』, 2004/12, 부산발전포럼
- 최도석, 「부산의 수상공간 시민여가 및 관광기능 창출에 관한 연구」, 102 연구 2003-20, 부산발전연구원, 세종문화사, 2003.11
- 황영우, 「부산지역내 주제공원의 성공적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PDI정책연구 32 2001-7, 부산발전연구원, 2001.11

